



|              |  |
|--------------|--|
| 제목           | Rome, Parthia and India: The Violent Emergence of a New World Order 150-140 BC |
| 발행언어         | 영어   |
| 발행처          | Pen and Sword  |
| 발행일          | 2013. 12. 19.  |
| 저자           | John D. Grainger   |
| 출판국가         | 영국   |
| 페이지수         | 256  |
| ISBN 또는 ISSN | 978-1848848252   |

#### 내용 요약

이 책은 기원전 150~ 140년 사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관한 정치사이다. 기원전 152-138년 사이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 일어난 일련의 전쟁들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기원전 150년 로마는 서부 지중해에 국한되었고, 셀레우코스 제국이 최고로 강력한 국가였다. 기원전 140년에 이르러 로마가 소아시아까지 팽창한 반면 셀레우코스 제국의 영토는 시리아에 국한되었다. 중동 지역에서 새로이 부상한 국가가 파르티아인데, 그 영토는 바빌로니아에서 박트리아에까지 이르렀다. 7세기 아랍이 정복할 때까지 로마와 파르티아가 서부지역을 양분하였다.

이제까지 여러 국가들이 치른 전쟁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졌지만 실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로마가 마케도니아에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스와 아프리카에서 정복과 파괴 전쟁이 벌어졌다. 셀레우코스 왕들이 왕위 분쟁에 몰두함으로써 파르티아의 미트리다테스 1세가 이란과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수 있었고, 유대 반란이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미트리다테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박트리아가 유목민 침입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목민이 박트리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그리스를 침입하여 그리스가 인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전쟁 과정으로 카르타고, 코린트, 아이 하눔(Ai Khanum), 파탈리푸트라(Pataliputra) 등의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안티오크와 티그리스 강변의 셀레우케이아(Seleukeia-on-the-Tigris) 도시들이 손상을 입었다.